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척추손상으로 인해 휠체어를 7년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일주일에 세번은 대학교 재활병원에 9시 첫 타임 재활 치료를 다니고 있으며 (평일,토요 아침)이주일에 세 번은 일산 에 있는 한의원에 왕복콜을 신청해서 침을 맞으러 (9:30분 첫 타임)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평상시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어김없이 정기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매일 그렇듯이 화장실에서 큰 볼일 및 샤워를 하고 있으면 차량이 배차되어서 출발해서 10분후에 도착한다고 기사님께서 전화가 오면 항상 제 마음이 다급해지고 빨리 볼일을 보고 씻고 준비하고 옷을 입고 소변도구 등을 챙겨서 전동휠체어에 타기까지 제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차량이 도착 후 10분을 기다려 주고 10분이 경과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기사님들 중 짜증을 내는 기사님 들도 간혹 한번 씩 있기에 정신적 · 육체적으로 마음에 중압감이 있는 터라 감은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거나 머리손질을 하지 못한 채 신발도 신지 않고 전동휠체어 무릎위에 올리고 엘베를 눌러서 차량 앞으로 가기까지 허둥지둥 나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차를 놓치면 다시 배차 를 받아서 가려면 배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 하지 않으면 병원 치료도 못 하게 되어서 매일 평일 아침마다 차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은 다급하고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지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를 비춰보면 다치기 전에는 출근시 아침밥 먹고 세안을 하고 준비해서 나가기 까지 30분이면 되는 일상 일들이 다치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아침 출근 시간 때 에 준비해서 병원에 가는 일들은 다치기 전의 3~4배의 시간이 걸리고 온몸에 진이 빠질것처럼 힘겹다는 것을 직접 겪어 보지 않으신 분 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라 생각 합니다.

서울시 시설 관계자 분들이나 장애인 콜센터 직원분들 또는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조금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에 대한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이용자의 애로 사항들을 잘 살피주거나 해하려 주지 않기에 모든 불편함은 이용자가 감수 하고 떠안아야 하는 사실이 싫게만 느껴 질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고싶어하는 마음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도 다치기 전에는 장애인분들 고통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누구라도 후천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중증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누가 언제 다치게 된다면 저와 같은 일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고통이 크게 다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친 부위가 척추 중에서 흉추 t2 ~ t3 번 가슴 위쪽 으로부터 신경들이 살아있고 가슴 아래로는 모든 신경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의 균형을 허리로 지탱할수 없기에 양손으로만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샤워 를 하고 큰일 보는 것도 한 손을 지지대에 의지하고 허리를 숙여서 다른 한 손으로 장갑을 끼고 일일이 변을 파내면서 볼일을 보다 보니 (변이 딱

딱해서 파내기도 힘들고 항문 바로앞에 있는 거는 어느정도 빠져 나오는데 항문 안 깊숙한 곳에 변이 있으면 손가락이 다음뿔, 말뿔 빠질 듯 하면서 안 빠지는 경우 머리가 돌아 버릴 것 같고 팔이 절여 오고 온몸에 땀은 비오듯이 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볼일을 보고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녹초가 되는 날이 허다 합니다.

큰 볼일을 보거나, 기구를 통해서 소변을 보고, 샤워하고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닦는 일이 왜 이리 힘이 들고 엉덩이는 왜 이렇게 천근, 만근 무거운지 다치치 않았을 때를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사고 이후 소,대변 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매일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 하자면 머리와 생각은 멀쩡한데 소,대변 보는 것은 마치 치매 환자가 된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했을 때라면 너무도 간단한 일들인데 장애인콜택시를 타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길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다친 몸상태에 대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척추 환자의 경우 사람에 따라 가슴 부위 또는 명치 부위, 배꼽 아래, 무릎 아래, 등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거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23/11/11 오늘도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산 한의원에 가기 위해서 큰 볼일을 보기 위해서 마음에 고통을 이겨내면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로 옮겨 앉아서 비닐장갑을 끼고 젤을 손가락에 위에 펴 발라서 한쪽 손으로 기둥을 부여잡고 양다리 사이로 바짝 엮드려서 다른 한쪽 손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딱딱한 변을 뭉텅이 뭉텅이 하나 씩 파내다가 숨이 차면 멈췄다 쉬면서 반복 적으로 변을 다 빼낼때까지 1시간 30분 가까이 사투를 벌인다. (이러다 보면 비닐장갑에 한번씩 피가 흔건하게 묻어 나오기도 한다.) 온 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몰아쉬고 샤워기로 땀을 씻어 내고있는 도중에 있으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연히 배차된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의 전화이다.

나는 전화를 받기전에 곧 차량이 도착하니 빨리 서둘러서 늦지않게 나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앞선다.

전화를 받는다. 기사님께서 어디에서 출발하면서 10분후에 도착 한다고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시라고 말씀해주신다 어딘가 모르게 다른기사님들과 다르게 쌀쌀 맞거나 무책임한 언행이 아니어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천천히 와주세요! 말을 건내본다 “네” 천천히 출발해서 오신다고 해주셔서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속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다른 기사분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느낄수 있었고 전화를 끊고 하고 있었던 샤워를 끝낼때 쯤 기사님께 전화가 걸려오면 도착 했다고 나올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봐 주시고 “아직 화장실입니다” 하니까 재촉하시지도 않으면서 전화기 넘어로 너스레 웃으면서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시라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하신 기사님도 계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방향이 출발지와 목적지차량 왕복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가는 내내 기사님과 즐거운 대화로 목적지까지 잘 올 수 있었고, 기사님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잘 치료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엘베를 타고 한의원으로 올라와서 치료 첫 타임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09:30분 첫 치료시간이 되어서 간호사님이 들어오라는 말과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침구실로 들어가서 엉덩이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고 (보통 침대 높이가 높아서 수동휠체어를 타고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리를 올리고 신발을 벗겨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활동지원사님이 오셔서 도와주는데 오늘은 집에서 김장을 하신다고 하셔서 하루 쉬는관계로 간호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침구에 편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선생님께서 전동휠체어를 빼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망설이게 되었는데 (평상시 활동지원사님이 치료 전, 후로 전동휠체어를 치워 주시거나 다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대기실에 와계셔서 저를 기다려 주시면서 휠체어를 빼주시고는 나가셨고 침을 맞고 끝날 무렵에도 기다려 주셨다가 활동지원사님 처럼 편안히 전동휠체어를 탈수있게 가져다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 했습니다.

집에오는 길에도 시골동네 형처럼 따뜻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음에도 기사님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아 두었다가 친절히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매일매일 손0호 77라3711 기사님 차량을 타고 싶어서 기다려 질것 같습니다.

손0호 기사님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뵈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

77라 3711 손0호 기사님을 칭찬합니다. ♥